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간호대학 · 서울성모병원 · 여의도성모병원 · 의정부성모병원 · 부천성모병원 · 은평성모병원 · 인천성모병원 · 성빈센트병원 · 대전성모병원

4,000번의 신장이식, 4,000번의 새로운 삶



국내 최초 신장이식부터 4,000례 수술까지...서울성모병원이 써온 이식의 역사

“1969년, 국내 최초 신장이식. 그리고 2025년, 4,000번째 기적.”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대한민국 신장이식의 시작이자 현재이다. 1969년, 국내 최초로 성공한 신장이식 수술은 이 땅에 장기이식의 가능성을 알린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2025년 2월, 4,000번째 신장이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서울성모병원은 반세기를 뛰어넘어 생명을 잇는 의학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최근에는 유방암 수술을 받았던 60대 여성 환자가 여동생의 기증으로 생체 신장이식을 받은 후 건강하게 퇴원해, 4,000번째 환자의 새로운 삶을 세상에 알렸다.

“신장이식 후 43년간 건강한 삶을 살아온 환자”

서울성모병원에서 이식을 받은 환자들 중 일부는 40년 이상, 반평생 이상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신장이식 후 30년 이상 건강을 유지한 환자는 69명, 20년 이상은 185명에 이른다. 특히 한 60대 남성 환자는 1982년 이식을 받고 현재까지 43번째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병원이 수술의 성공뿐 아니라 이식 후 환자 관리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지표이다. 이식신장의 10년 생존율은 1970년대 23%에서 2010년대 78%로 크게 향상되었다.

“어려운 조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은 혈액형이 맞지 않아 일반적으로 이식이 어려운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에서도 국내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다. 2025년 기준 누적 450례를 돌파했으며, 면역 거부 반응이 강한 고감작 환자, 간과 신장 동시이식이 필요한 복합질환자,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 환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대상에게 맞춤형 이식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신장내과, 외과, 비뇨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등 전문 분야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다학제 협진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는 한 명이지만, 치료는 한 병원이 함께 진행한다.

“지금도, 서울성모병원은 더 좋은 신장이식을 고민합니다.”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는 매년 신장이식 관련 SCI 논문을 발표하고, 국제 학회에서 수상하며 학술적으로도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 개최된 ‘신장이식 4,000례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로봇보조 이식수술, 정밀 면역검사, 약물 유지 전략 등 최신 치료법이 공유되었고, 이를 통해 향후 더 안전하고 오래 가는 신장이식의 방향이 제시됐다. 서울성모병원이 지켜온 반세기의 신장이식 역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환자의 삶과 의료진의 헌신이 만든 기록이다. 앞으로도 서울성모병원은 ‘더 많은 환자들에게 더 오래 건강한 삶’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969. 03. 25
국내 최초 신장이식



2012. 11. 30
국내 최초 조혈모세포
면역관용유도 신장이식



혈액형부적합 신장이식 200례 기념
수술일: 2018년 12월 19일 장소: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2018. 12. 19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 200례

서울성모병원 신장이식 4,000례 달성



2025. 02
서울성모병원 신장이식 4,000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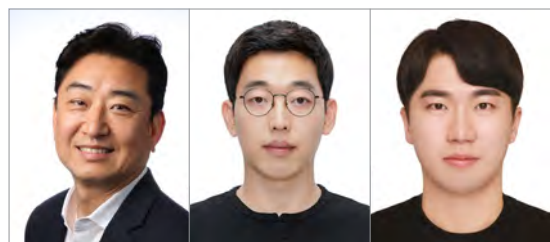
4,000번째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이 모 씨의 주치의 장기이식센터 정병하(신장내과) 교수가 수술 후 건강을 되찾은 환자에게 축하하는 인사를 건네고 있다.

1986. 02. 23
신장이식 200례



간세포암 촉진하는 유전자 메커니즘 규명

가톨릭대 의대 남석우 교수팀, 종양 억제 인자로 알려진 GAS5의 촉진 기능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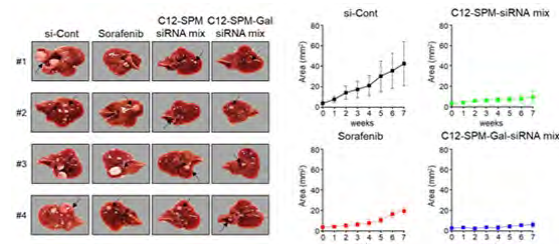


남석우 교수 · 김상연 연구강사 · 하진웅 연구원(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남석우 교수(교신저자), 김상연 연구강사(공동 제1저자), 하진웅 연구원(공동 제1저자) 연구팀은 종양 억제 유전자로 잘 알려진 'GAS5(Growth Arrest Specific 5)'가 간세포암에서는 오히려 종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RNA에 생기는 특별한 화학 변화(m6A 변형)를 받은 RNA들 중에서, RNA의 수명을

조절하는 'IGF2BP 단백질'과 관련된 유전자 중, 그 가운데 유일하게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RNA인 GAS5가 간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연구팀은 GAS5에 m6A 변형이 생기면 RNA가 분해되지 않고 오래 살아남게 되어 기능적 활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 이렇게 안정화된 GAS5는 miR-423-3p라는 작은 RNA를 흡수하면서 간접적으로 SMARCA4라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 이 과정은 다시 하위 유전자들의 조절로 이어지면서 간암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유전자 연결망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GAS5의 양을 조절하거나, miR-423-3p의 작용을 차단하거나, m6A 변형을 조절하는 효소에 주목하면 새로운 간암 치료 전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GAS5, miR-423-3p, SMARCA4는 간암의 조기 진단 마커나 예후 예측 인자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



▲GAS5와 SMARCA4의 이중 결손은 간암 생체 내 모델(IN VIVO)에서 종양 형성을 유의미하게 억제함을 확인했다.

번 결과는 단일 유전자가 고정된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암의 종류, 환경, 후성유전적 조건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IF=12.9) 2025년 6월호에 발표됐다.



소득 낮을수록 중증 저혈당 위험 최대 2.5배 높다

성빈센트 윤재승 교수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소득 수준과 중증 저혈당 발생 연관성 규명



윤재승 교수(왼쪽) · 김미숙 임상강사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내분비내과 윤재승 교수,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김미숙 임상강사, 숭실대학교 한경도 교수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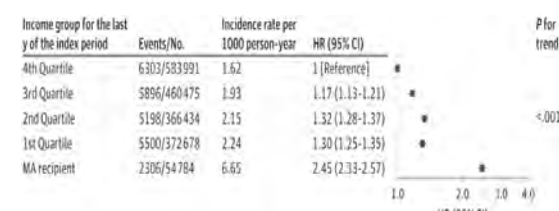
동 연구팀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중증 저혈당 발생 위험이 최대 2.5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했다. 저소득층 당뇨병 관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맞춤형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연구팀은 한국 국민건강정보데이터베이스(NHID)와 영국 바이오뱅크(UKBB)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제2형 당뇨병 성인

환자 185만여 명의 소득 및 임상적 특성을 심층 조사했다. 환자 데이터를 소득 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저소득 환자군은 최상위 소득 수준 환자군에 비해 제2형 당뇨병의 중증 저혈당 악화 위험이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년 이상 의료급여를 지속 수급한 환자는 중증 저혈당 위험이 71% 증가한 반면, 5년간 소득이 꾸준히 증가해 최상위 소득군으로 이동한 환자는 위험이 약 26% 감소했다.

이러한 소득 수준과 중증 저혈당 발생 위험 간의 상관관계는 특히 ▲남성 ▲인슐린 미사용 환자 ▲만성신장질환 미보유자 ▲당뇨병 유병 기간이 짧은 환자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관찰됐다.

윤재승 교수는 “중증 저혈당은 치명적인 당뇨병 합병증으로, 당뇨병의 사망률과 이환율을 증가시키고 의료비용 상승을 초래한다.”며 “이번 연구는 당뇨병 관리에서 소득 수준이 실



▲환자 데이터를 소득 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저소득 환자군은 최상위 소득 수준 환자군에 비해 2형 당뇨병의 중증 저혈당 악화 위험이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인 위험 요인임을 입증한 것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맞춤형 관리 전략이 중증 저혈당 예방은 물론,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미국의학협회(JAMA)가 발행하는 국제 저명 학술지 《JAMA Network Open》(IF=9.7)에 게재되며, 학술적 의의를 높이 평가받았다.



희귀 혈액질환 골수섬유화증 진행 과정 규명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정연준 교수팀, 단일세포 RNA 분석 기술로 새 치료 타겟 제시



정연준 교수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초정밀의학사업단 정연준 교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와 가톨릭대학교 병리학교실 이석형 교수, 생화학교실 정승현 교수,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이성은 교수 공동 연구팀이 희귀 혈액질환인 골수섬유화증의 진행 과정을 단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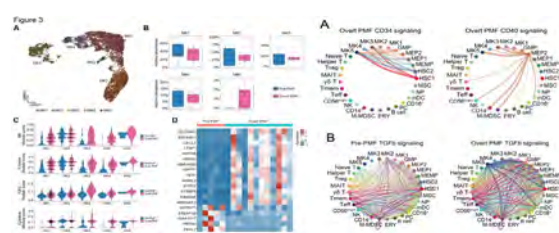
세포 RNA 분석 기술을 활용해 정밀하게 규명했다.

골수섬유화증은 혈액을 만들어내는 조혈인 골수가 점차 섬유조직처럼 딱딱하게 변하면서 제 기능을 잃는 희귀한 골수증식성 종양의 하나이다. 이 질환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약해지고, 빈혈, 출혈, 감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결국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기존 연구들은 이 질환이 거핵세포(megakaryocyte), 즉 혈소판을 생성하는 특수한 혈액세포의 이상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단순히 하나의 세포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세포 유형이 상호 작용하며 병이 점점 악화되는 매우 복잡한 과정임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골수섬유화증 환자를 전섬유화기와 진행성 두 그룹으로 나눴다. 이렇게 나눈 두 그룹의 골수세포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단일세포 RNA 분석을 통해, 병의 진행에 따라 조혈모세포(피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가 거핵세포 쪽으로만 분화되며, 염증과 섬유화를 유도하는 유전자들이 강하게 발현되는 경향을 확인했다. 특히, 진행성 환자에서만 나타나는 특정 하위군의 거핵세포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 세포들은



▲골수섬유화증 환자 거핵세포 하위군의 분자 특성(왼쪽) 및 세포 간 신호전달(오른쪽) 규명

‘상파-간엽 전이’ 관련 유전자를 발현하고 있어, 섬유화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연구는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의 인프라 지원을 받아 추진됐으며 혈액학 분야 대표적 국제 학술지인 《Haematologica》(IF=8.2) 4월호에 게재됐다.



만성기 뇌졸중 환자에서 뇌가소성 지속 확인

성빈센트 유연지 교수팀, 구조적 뇌 재편성과 상지 기능 회복 간 연관성 규명



유연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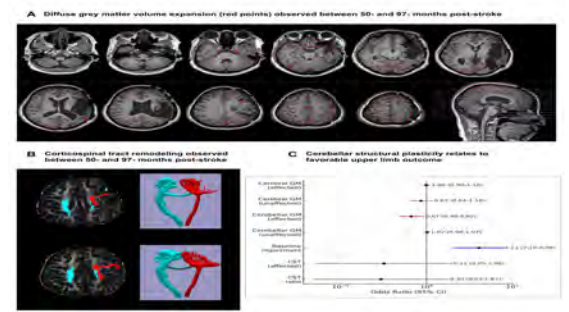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유연지 교수팀이 뇌졸중 발병 6개월 이후인 만성기 환자에서도 소뇌에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경우 팔과 어깨 등 상지 운동 기능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뇌졸중 발병 6개월 이후에는 신경 회복이 어렵다는 기존 통념과는 다른 결과다.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성빈센트병원에서 편측성 뇌졸중을 경험한 만성기 환자 62명을 대상으로, 평균 51개월(최소 13개월~최대 137개월) 동안의 장기 추적 뇌 MRI 영상을 분석했다. 특히 연구팀은 대뇌와 소뇌의 구조적 변화를 중심으로 상지 운동 기능의 회복 여부와의 연관성을 정밀하게 살펴보았다.

그동안 뇌졸중 후 신경 회복과 재활 효과는 주로 발병 후 3~6개월 이내의 급성기 및 아급성기에 집중된다고 여겨져, 만성기 환자들은 재활 치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일부 만성기 환자들에게서도 뇌 구조의 재편성과 함께 상지 운동 기능의 회복이 나타나는 현상이 확인됐다.

연구에 따르면, 일부 만성기 환자에서 발병 수년이 지난 후에도 대뇌 피질 회백질의 부피 증가와 피질척수로(CST) 무결성 변화 등 뇌 구조의 재편성이 지속적으로 관찰됐다. 이는 뇌졸중 이후 회복을 좌우하는 신경 가소성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병변과 연결된 소뇌측의 회백질 부피 증가가 장기적인 상지 기능 회복과 독립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소뇌의 구조적 가소성이 만성기 뇌졸중 환자의 운동 기능 회복의 핵심



▲만성기 뇌졸중 환자에서의 뇌 구조 재구성 및 상지 기능 회복 간 연관성

기전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한편, 이번 연구는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심장협회(AHA)에서 발행하는 신경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Stroke》(IF=7.9)에 게재되며, 학술적 의의를 높이 평가받았다.



뼈 재생 촉진하는 고기능성 생체재료 플랫폼 개발

은평성모 박해관 교수팀, 세포 부착 및 증식 유도하는 PLLA 기반 표면 개질 기술 제시



박해관(왼쪽) · 전홍재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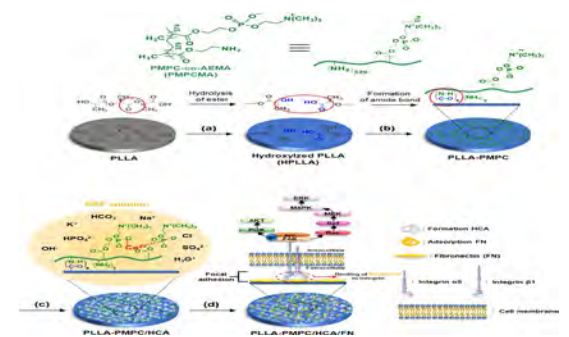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신경외과 박해관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생명과학 교실 전홍재 교수 연구팀이 세포가 잘 자라고

뼈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고기능성 생체재료 플랫폼을 개발했다. 분해성 고분자인 폴리-L-젖산(PLLA)의 표면을 생체 모사 방식으로 개질해 세포 접착력과 생체친화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통해 향후 골조직 재생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공학 기반 치료 플랫폼에 폭넓게 응용될 수 있는 기술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PLLA는 생체 내 분해가 가능해 치세대 정형외과용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나, 표면의 소수성으로 인해 세포 부착성이 낮고, 인공 뼈 형성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PLLA 표면에 인산기(phosphate group)를 도입할 수 있는 생체 친화 코팅물질(PMPC)을 결합하고, 이를 통해 인공 미네랄화(HCA; hydroxycarbonate apatite)를 유도했다.

연구팀은 이 개질된 PLLA-PMPC 표면을 체액 유사액(SBF)에 침지해 14일간 미네랄화를 유도했고, 이후 표면에 자연골과 유사한 HCA 결정이 형성됨을 확인했다. 이 구조는 세포외 기질 단백질 중 하나인 파이버넥틴(fibronectin) 흡착을 유도하며, MG-63 세포(인간 골육종 유래 세포)의 부착 및 증식을 현저하게 향상시켰다.

또한, HCA가 형성된 PLLA-PMPC 표면에서는 세포 부착을 매개하는 인자들의 발현이 크게 증가했고, 세포 증식 관련 인



호전달 체계도 활성화됐다. 이로 인해 MG-63 세포의 증식을 이 기존 PLLA 대비 유의미하게 증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논문은 SCIE급 국제 학술지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IF=6.0) 5월호에 게재됐다.



여성 당뇨병 환자의 질 내 마이크로바이옴 변화, 치료 필요성 확인

부천성모 김민정 교수팀, 폐경 여부·약물 치료·감염 등에 따라 미생물 생태계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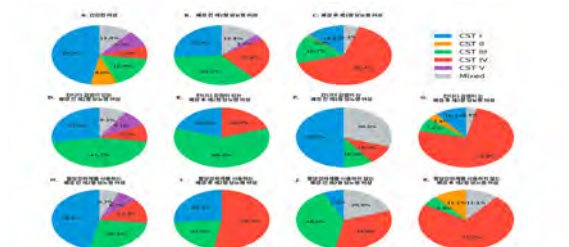
김민정 · 김명신 · 이승욱 교수(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김민정 교수, 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명신 교수, 인천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승욱 교수 연구팀이 당뇨병 여성의 경우 건강한 여성에 비해 질 내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의 계층)이 현저히 낮아지고 변화되어 환자의 상황에 따른 치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연

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제2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여성 7명과 건강한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질 내 미생물 상태를 분석, 폐경 여부, 칸디다 감염 유무,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 2(SGLT2) 억제제 복용 여부에 따라 당뇨병 여성은 건강한 여성에 비해 질 내 유익균 비율이 현저히 낮고, 반대로 유해균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건강한 여성과 달리, 당뇨병 여성은 건강한 여성에 비해 질 내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Lactobacillus) 비율이 현저히 낮았고, 유해균 및 혐기성 세균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폐경 이후에는 유익균 중심의 군집(CST)이 감소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군집(CST M)이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칸디다 감염이 있는 경우에도 유익균 비율이 감소하고, 유해균 비율이 증가해 균형이 깨진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보였다. 또한 혈당



▲건강한 여성 VS 당뇨병 여성 집단별 질 내 마이크로바이옴 비교

강화제인 SGLT2 억제제를 복용한 폐경 전 여성에서 유익균 보호 효과를 보인 반면, 폐경 후 여성에서는 급격한 질 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 확인됐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마이크로오가니즘(Microorganisms)》(IF=5.1) 2025년 6월 25일자에 게재됐다.



PEOPLE

알츠하이머, 희망을 연주하다

여의도성모병원 뇌건강센터장 임현국 교수

진료실에서는 노인의 기억을 붙잡고, 연구실에서는 미래 치료제의 청사진을 그리며, 일렉트릭 기타로는 마음을 울리는 남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센터장 임현국 교수의 이야기다.

알츠하이머병과 노인 우울증은 삶의 말미에 찾아오는 가장 무거운 그림자다. 임 교수는 이 두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며, 단순한 증상 관리가 아닌 '삶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그는 여의도성모병원의 정신건강의 학과를 연구 중심의 진료 시스템으로 변모시키며 국내 치매 치료와 중계 연구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는 단지 냉철한 연구자만은 아니다. 빈티지 앰프에 기타를 꽂아 넣고 1970년대 블루스를 연주하는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감성적인 이야기꾼이 된다.



알츠하이머병과 노인 우울증, 그 진짜 얼굴

“노인 정신질환은 젊은 사람의 우울증과는 다릅니다. 단지 ‘마음이 약해졌다’는 수준이 아니죠. 뇌 자체의 변화에서 출발합니다.” 임 교수는 노인 정신질환 진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질적인 접근’이라고 단언한다. 즉, 심리나 환경 요인보다는 뇌의 상태, 생물학적 지표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배경에는 질병의 원인을 생물학적으로 규명하는 의학의 발전이 있다. 특히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과거에는 증상을 보고 진단하는 ‘기술적인 진단 체계’였다면, 지금은 생물학적 지표, 즉 ‘바이오마커(biomarker)’를 통해 병의 원인(병인)을 파악하는 ‘병리학적 진단 체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나 타우 단백질, 신경 퇴행 등의 문제가 확인되면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하는 식이다. 그는 “MRI, PET, 혈액 바이오마커는 이제 기본 진단 도구”라고 말한다. 노인 우울증도 마찬가지다. 뇌의 퇴행성 변화나 혈관 문제, 당뇨 등 복합적인 신체 요인이 작용하며, 이는 치료와 예방 모두에 있어 생물학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8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끌어낸 남자

알츠하이머병 연구의 방향은 이제 ‘병을 막는 것’에서 ‘병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를 위해 임 교수는 정부와 기업의 연구비를 유지하며 거대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세계 최대 치매 연구기금인 DAC(Davos Alzheimer's Disease



노인 정신 건강의 최전선에서 진료와 중계 연구로, 혁신을 선도하는
여의도성모병원 뇌건강센터장 임현국 교수를 만나다

Collaborative)와의 협력이다. 여의도성모병원은 동양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DAC의 유일한 국내 협력기관으로, 이로 인해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공동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임현국 교수의 연구는 최근 ‘중개 연구(translational research)’의 플랫폼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데이터를 정교하게 수집해 다른 연구 기관이나 기업과 협업하고, 그들의 기술을 검증하거나 임상적 통찰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한 기반이 바로 6,000건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CABi 코호트다.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센터의 비밀 병기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센터는 2017년 설립 당시, 연구비 3,800만 원으로 시작해 현재는 80억 원 규모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놀라운 성장의 핵심은 세 가지다.

① 유능한 인재와 팀워크

치매를 전공하는 교수만 세 명. 진료-연구-데이터 수집이 유기적으로 이뤄진다. 임 교수는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똑똑한 후배들과 함께한다.”고 말한다.

② 전용 공간

뇌건강센터라는 독립된 공간이 환자 경험의 질을 높인다.

③ 열정적인 구성원들

주말 진료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절박감이 조직 전체에 전해진다. 임 교수는 이를 “리오넬 메시급 개인기로 버틴 시기”라 표현했다.

또한 가톨릭중앙의료원 내 알츠하이머 진료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여의도성모병원은 서울성모병원 및 성빈센트병원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병원 간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작업에는 임 교수와 연구팀의 수년 간 노력이 담겨 있다.



기타는 그의 또 다른 언어

임현국 교수는 진료도 잘하고 연구도 열정적이지만, 그의 또다른 매력은 ‘일렉트릭 기타’다. 그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기타를 손에 쥐었고, 전문의가 된 후 14년간 밴드를 결성해 클럽 공연까지 했던 실력자다. ‘그루브 유닛’, ‘스톤 브리지’ 같은 밴드 운영을 통해 1960~1970년대 클래식 록을 연주하며 정기 공연도 했었다.

이 음악적 경험은 그에게 특별한 통찰을 안

겨줬다. “밴드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리듬을 듣고, 배려하고, 타협하면서 하나의 곡을 완성하죠. 이 과정은 조직에서 팀을 운영하는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는 매일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기타를 연습한다. 기타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도구가 된 것이다.



환자와 함께 걷는 길, 그 끝에 희망이 있다

임현국 교수는 요즘 진료가 더 재밌어졌다고 말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환자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주목받는 ‘레렘비(Leqembi)’의 도입 이후, 실제로 기억력이 회복된 환자 사례들을 접하며 진료의 보람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한다. 물론 이 치료는 2주간격으로 1년 반 동안 맞아야 하고, 비용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 효과는 분명하다.

“이제 알츠하이머병은 ‘완전히 낫는 병’은 아니지만 ‘관리가 가능한 병’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진단하고, 조기 치료를 시작하면 삶의 질을 상당히 지킬 수 있어요.”

그는 알츠하이머병을 조기 위암과 비교한다. “내시경으로 조기 위암을 발견해 완치하듯, PET이나 MRI로 조기 치매를 발견하면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환자들에게 전한다. “알츠하이머병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조기 진단, 바이오마커 분석, 항체 치료제가 모두 가능해진 시대예요. 희망은 연구실이 아니라, 병원 진료실 안에 있습니다.”

임현국 교수는 지금, 의학의 가장 뜨거운 현장에서 알츠하이머병이라는 난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기타의 리듬처럼 말한다. “희망도 결국은 연습의 산물입니다. 꾸준히, 멈추지 않고, 정확하게. 그러면 언젠가는 멜로디가 됩니다.”





그저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이어져 온, 138번의 헌혈

인천성모병원 재무팀 최인호 책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138번의 헌혈을 이어 온 인천성모병원 재무팀 최인호 사원이 최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혈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수상 소식에 축하를 건네자 대단치 않은 일이라며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도, 이제는 헌혈이 습관처럼 굳어지게 되었다는 최인호 책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성모병원 재무팀 최인호입니다. 2021년도부터 인천성모병원 재무팀에 입사해 지금까지 근무하며 현재는 출납 업무와 부서운영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꾸준한 헌혈로 올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표창까지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헌혈을 해오셨고, 지속하고 계신지요?

지금까지 총 138회 헌혈을 해왔습니다. 컨디션이 나쁘거나 특별히 못하는 사유가 없을 때는 3주에 한 번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지속하고 있습니다. 혈액의 모든 성분을 채취하는 ‘전혈헌혈’의 경우 한 번 헌혈하면 다음 헌혈까지 8주의 간격을 두고 해야 하지만, 저는 보통 2주 정도의 간격을 두는 ‘성분헌혈’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헌혈은 부끄럽지만 2008년 고등학교 생 때, 헌혈 기념품을 받기 위해 친구와 함께 고등학교에 왔던 헌혈차에 올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두세 번은 친구와 함께 영화 티켓을 받고 싶어서 헌혈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점점 혼자 가게 되고, 그 이후로도 지속하게 되면서 이제는 습관처럼 굳어지게 된 느낌입니다.

헌혈은 주로 집 근처에 있는 헌혈센터를 방문해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에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혈해 왔고, 대부분 그곳에서 하다 보니 그 센터에서만 100회 이상 헌혈하게 됐습니다. 꾸준히 다녔다 보니 헌혈센터장님과도 자주 보고, 한동안 안 가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부를 물으시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센터에서 대한적십자사에 저를 수상자로 추천해 주셨고, 이번에 표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 대단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상까지 받게 돼 민망할 따름입니다.

오랜 기간 헌혈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있다면?

헌혈을 시작하고 난 후 한동안은 별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 할 수 있는 기간마다 꼬박꼬박 하지도 않았습니



다. 그래서 ‘1년에 10번씩, 30살이 되기 전까지 100번을 해보자’라는 막연한 계획을 세워봤고, 그 다짐을 한 이후로 생각날 때마다 헌혈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부끄럽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자부심이나 보람을 느끼거나, 나눔을 하고 있다거나, 타인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

다. 정말 횡수만 채우기 위해 별 생각 없이 헌혈을 해왔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 헌혈 횡수가 늘어남에 따라 제가 헌혈을 함으로써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1시간, 조금 불편한 1시간만 참으면 누군가에게는 몇 시간, 운이 더 좋으면 앞으로의 삶이라는 긴 시간을 선물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후로도 잠깐의 불편함을 참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에 스스로 뿌듯함이 들었고,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헌혈을 지속하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반응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아무래도 걱정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제 건강에 좋지 않을까봐 너무 자주 하지 말라고 걱정하시기도 했

고요. 그렇게 주변에서 좋다고 말해 주면 기분이 좋기는 한데, 사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헌혈하기 위해 신경 쓰는 것도 있나요?

컨디션과 건강 유지를 위해 수영이나 달리기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헌혈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건에 벗어나는 것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에도 말라리아 발생 위험 지역은 다녀오면 1년간은 헌혈을 할 수 없다



헌혈을 지속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지만, 제가 헌혈을 거듭할수록 든 생각은, ‘나에

게는 딱히 필요하지 않은데도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 혈액은 저한테는 잘 먹고 잘 자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약간 뽑아낸다고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을 나누는 건 어려운 일이겠지만, 저는 헌혈을 한다고 해서 제게 생기는 불편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헌혈을 왜 그렇게 많이 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안 할 이유가 없잖아”라고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나눔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에 가장 간절히 원하는 분께 원하는 것을 드릴 수 있는 헌혈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것과 맞닿는 부분도 있을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 같은 의료인은 아니고 환자와 전혀 접점이 없는 재무팀에서 근무를 하지만,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매우 간접적으로나마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해왔던 헌혈과 봉사가 저를 인천성모병원으로 이끌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FOCUS

10배 이상 증가한 심혈관질환, **조기 진단**이 핵심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심혈관질환은 여전히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고령화,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등으로 1970년대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률은 10배 이상 증가했다.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협심증과 심근경색. 심장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발생하는 이 질환들은 골든타임 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한다. 임 교수는 “이제는 병원에 오기 전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뒤 병원을 찾는 것보다, 정기검진과 사전 진단이 훨씬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며,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혈관질환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고 강조했다.

심장을 지키는 시간, 생명을 지키는 힘

의정부성모병원 심혈관센터 경기북부 심혈관 치료의 새 기준

의정부성모병원 심혈관센터, 경기북부 심장 건강을 지키다

경기북부 지역의 대표 심혈관 치료 거점으로 자리 잡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심혈관센터는 2004년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 이래 ‘심장 건강 지킴이’라는 소명을 실천해 왔다.

당시 최신 심혈관 촬영 장비인 ‘AXIOM Artis Dfc’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장비 업그레이드와 의료진 역량 강화는 대학병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다. “심장은 한 번의 위기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 해도 이상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치료해야 합니다.”라며, 심혈관센터장을 맡고 있는 순환기내과 임성민 교수는 ‘예방보다 나은 치료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의정부성모병원 심혈관센터는
환자의 심장을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킵니다.

☎ 의정부성모병원 심혈관센터 문의 · 예약
전 화 | 031-820-3114
홈페이지 | www.cmcujb.or.kr



심전도/생활심전도
관상동맥질환 진단

원인부터
결과까지
추적하는
심혈관 검사실



미래를 준비하는 **심장 센터의 비전**

의정부성모병원 심혈관센터는 단지 ‘진료’에 머물지 않는다. 임 교수는 심장 질환의 예방, 조기진단, 맞춤형 치료를 위한 새로운 연구와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이다. 지역 내 건강검진 시스템과 연계한 조기 발견 시스템, 고위험군 추적관리 시스템 등을 병행하며 ‘심장 질환 제로(Zero)’를 꿈꾸고 있다. 또한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진단,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도입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도 준비 중이다.

“심혈관센터는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연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다학제 협진 체계와 심혈관 전문 의료진

“환자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퇴원할 때까지
한 명의 의료진이 아닌, **한 팀이 움직입니다.**”

의정부성모병원 심혈관센터의 강점은 ‘사람’에 있다. 센터에는 심장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순환기내과 전문의들이 포진해 있으며, 심장혈관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유관 진료과와 긴밀한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학과와의 공조를 통해 ‘심장질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24시간 응급심장중재술 대응 시스템도 갖췄다.

실제 임상에서도 고난도 중재시술, 즉 가슴을 열지 않고 혈관을 통해 치료하는 풍선확장술, 스텐트 삽입술 등 다양한 중재 시술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는 숙련된 의료진과 체계화된 장비, 그리고 병원의 유기적인 조직력이 만든 성과다.

심혈관센터는 관상동맥 조영술로 심장과 혈관의 구조적·기능적 이상을 정밀 진단하고, 협착·폐색 부위에 대한 경피적 중재 시술(PCI)을 비롯해 인공심박조율기 삽입술 등 심장질환 전반을 포괄적으로 치료한다. 끊임없는 장비 업그레이드와 풍부한 시술 경험으로 경기북부 주민에게 수도권 대학병원 수준의 고난도 심혈관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첨단 검사 장비가 만드는 정확한 진단



심혈관센터는 다양한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디지털 평판 탐지기(Flat Panel Detector)를 장착한 장비는 기존보다 더 선명한 영상 확보가 가능해, 심장 내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 장비 설계도 주목할 만하다. 자동 조절 기능을 통해 시술 시간을 단축하고, 방사선 노출량을 최대 90%까지 줄였다.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고정밀 장비와 함께, 정밀한 진단이 심장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심장초음파

선천성 심장질환, 판막질환,
경흉부·경식도 초음파, 운동·
약물부하 심장초음파



임상전기생리

인공심박조율기 삽입



심장핵의학

관상동맥질환 진단



실신검사

실신 원인 평가



24시간 대응 체계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심혈관계 질환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특히 심근경색처럼 응급성이 큰 질환일수록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정부성모병원 심혈관센터는 ‘24시간 심장중재술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응급의료기관 및 119와 연계한 응급 이송망을 구축해,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부터 진료가 준비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진료 대기 없이 바로 시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심장, 건강한 삶의 출발점

심혈관센터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환자 중심’이다. 질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치료를 추구한다. 심혈관센터가 제공하는 고도화된 시술과 정밀 진단은 단지 의료 기술에 그치지 않는다. 그 안에는 생명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지역 사회를 향한 책임감이 담겨 있다.

“심장은 멈추면 안 됩니다. 저희는 그 심장이 계속 뛸 수 있도록,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혈관센터장 임성민 교수





기름진 식습관, 우리 '간담이 서늘'하게 할 수 있다



● 우리말 속 단골 등장 기관

우리 속담이나 관용구에 자주 등장하는 친숙한 기관이 있다. 몹시 놀라서 섬뜩할 때는 '간담이 서늘하다', 췌대가 없거나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는 '쓸개 빠진 놈',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가 있다. 쓴 고난도 참고 견디며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는 뜻의 사자성어 '와신상담'까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관은 쓸개, 즉 담즙을 담아두는 담낭과 그를 내려보내는 담도다.

그 중에서도 담도는 간에서 만든 담즙이 소장으로 내려오는 통로로, 지방 소화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담석이 생기거나 염증이 발생하면 담즙의 흐름이 막혀 복통, 황달,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담석증 환자는 연간 약 25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40대 이상에서 발병률이 높다. 전문가들은 현대인의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을 증가가 담도 질환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 담석증, 담관염, 담낭염까지

대표적인 담도 질환 중 담석증은 담낭이나 담관에 돌이 생기는 질환으로, 평소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기름진 음식을 섭취한 후 우상복부 통증,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담관염은 담관에 세균 감염으로 인해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발열, 황달, 오한 등이 동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담낭염은 담낭 벽에 염증이 생겨 심한 복통과 발열이 지속되는 질환으로, 방치하면 담낭 천공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치료는 질환의 원인과 중증도에 따라 다르다. 약물 치료의 경우 염증을 완화하고 담즙 배출을 돕는 항생제 및 진경제를 사용한다. 내시경 시술(ERCP)로는 담관 내 담석을 제거하거나 스텐트를 삽입해 담즙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인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복강경 및 로봇수술을 이용한 최소침습수술이 널리 시행되어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 발생 위험이 낮다.

● 건강한 식단으로 담도 건강 지키기

담도 질환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기름진 음식과 콜레스테롤 식품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한다.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담즙 정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비만은 담석 형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적절한 체중 관리를 통해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주 3~4회 이상의 유산소 운동 또한 담도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감수: 의정부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신승호 교수)



유난히 더운 여름철, 건강하게 체중 관리하세요!

날씨가 더워지고 옷차림이 얇아지면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다. 이때 단기간 내에 빠르게 감량해야겠다는 욕심에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어렵게 감량한 체중이 빠르게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 한 달에 2kg의 체중 감량을 목표로

다이어트는 1주일에 500g의 감량, 즉 한 달에 2kg의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게 이상적이다. 이때 적극적인 신체활동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식사 습관을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무작정 굶거나 원푸드 다이어트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보다 저탄수화물 식단(탄수화물 섭취량을 총 섭취 에너지의 45% 미만으로 제한하며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통곡물, 채소, 과일 등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방법)이나 시간제한식사(하루 24시간 중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고 나머지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방법)를 통해 효과적으로 체중 감량을 이룰 수 있다.

극단적인 식이 요법은 지속적으로 이행하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 달에 2kg 이상 감량하게 되면 근육 소실이 증가하면서 요요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휴가 등의 이유로 조금 더 빠르게 감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근육 운동을 주 2~3회 이상 실시하고 단백질 섭취(1.2~1.5g/kg, 예를 들면 60kg 인 사람은 하루에 단백질을 72~90g 섭취)를 충분히 할 경우에는 한 달에 3~5kg 정도의 체중 감량도 근육 손실 없이 가능할 수 있다.

● 액상 과당이 많은 음료, 당류와 포화지방이 많은 아이스크림, 팔빙수 등은 조심

날씨가 더울 때는 시원한 음료와 아이스크림, 빙수 등의 섭취 빈도가 늘어난다. 하지만 액상 과당은 같은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체내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높이며, 빠르게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될 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덜 느끼게 하므로 과식을 유발할 수 있다. 갈증이 날 때는 물이나 탄산수 등을 의식적으로 마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며, 마찬가지로 아이스크림, 팔빙수 등 여름에 즐겨 먹는 식품들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

Q 은평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이재동 교수

진료 분야 비만클리닉, 근감소증, 스포츠의학, 암치료 후 건강관리
진료 시간 [오전] 수, 금 [오후] 월, 수, 목



다른 그림 찾기

서로 다른 부분 3곳을 찾아보세요.

응모하기



서로 다른 3곳을 체크해 사진 촬영하신 후 QR코드를 인식해 응모해 주세요. (2025.8.20.까지)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각 30,000원 상당의 배달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김*예
김*은
김*슬

▶ 당첨자분들께는 휴대폰으로 개별 연락드립니다.



“하나 둘 셋, 활짝 웃으시고 장수하세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영성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 및 나눔 행사'를 소사성당에서 진행했다. 장수사진은 어르신들의 가장 젊은 모습을 담아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남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보통 칠순, 팔순을 기념해 촬영한다. 부천성모병원은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전하고자 소사성당의 협조 아래, 어르신 7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촬영한 장수사진은 소사성당에서 전시 후 개인에게 선물로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성모병원

난치성 혈액암 다발골수종 중앙생존기간 80개월 성과

혈액병원 12년 장기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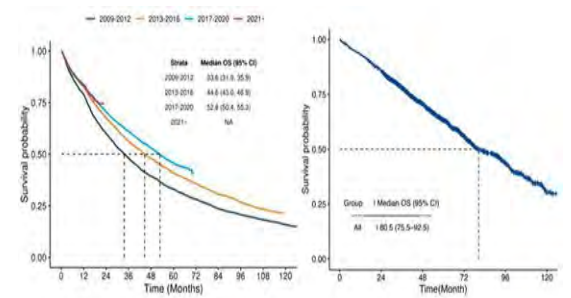
환자별 맞춤 치료법 및 다학제 진료 결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약 2천 명이 국내에서 새롭게 진단되고 있는 혈액암 다발골수종의 최근 10여 년 치료 성적을 공개했다.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다발골수종센터 민창기·박성수·이정연·변성규 교수팀이 12년간 치료받은 다발골수종 환자군(1,291명)을 조사한 결과 중앙 생존기간

(Median Overall Survival, OS)이 80.5개월(2010~2021년)이었다. 난치성 혈액암 치료 성적을 장기간 분석해 공개한 국내 첫 사례다. 전체 생존기간(OS:overall survival)은 치료 시작 후부터 사망에 이르는 시간인데 환자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average)이 아닌 중간값(median)을 기준으로 삼는다.

최근 공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발골수종 환자의 중앙 생존기간은 치료 시작 시기에 따라 33.6개월(2009~2012년), 44.6개월(2013~2016년), 52.8개월(2017~2020년)이다.

서울성모병원은 환자 맞춤형 치료 설계,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의 적극적 활용, 신약 기반 유지요법, 고위험군 대상 최신 면역항암제(이종항체, CAR-T 등)의 선제적 도입을 통해 환자 개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 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감염 내과를 비롯한 여러 임상과 의뢰진과의 다학제 통합 진료 시스템 뿐 아니라, 혈액암 전문 간호사들의 면밀한 관리를 통해 항암치료의 부작용 관리 및 지속적 치료 순응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리나라 다발골수종 환자 생존율(왼쪽)과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다발골수종 환자 생존율(오른쪽)

혈액병원 다발골수종센터장 박성수 교수(혈액내과)는 “이번 생존율 결과는 단순히 치료 성적을 넘어, 환자 중심의 통합적 진료와 근거 기반의 치료 전략이 실제 임상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치료 성과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과 장기 생존율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다발골수종 치료 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의도성모병원

백내장 수술 정밀도 높이는 최신 펄스초 레이저 도입

극초단 레이저로 열 손상 없는 정밀 절개, 각막내피세포 손상 최소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최근 안과병원에 안과 수술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백내장 수술용 최신 장비인 ‘펄스초 레이저’를 도입,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이번에 도입된 펄스초(femtosecond) 레이저(카탈리스, 존

슨앤존슨社)는 레이저 펄스의 폭이 1,000조(10¹⁵)분의 1초의 극히 짧은 적외선 펄스 레이저로, 주변 조직에 열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부위를 정밀하게 절개할 수 있는 첨단 의료장비다.

펄스초 레이저는 백내장 수술의 핵심 과정인 ▲수정체전방 절개술 ▲수정체핵분할 ▲난시교정용 각막절개를 모두 레이저로 시행할 수 있어 기존 수술법 대비 정확도, 편의성, 그리고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백내장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수정체전방 절개술을 펄스초 레이저로 시행하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완벽한 원형 모양의 절개가 가능해 수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수정체핵분할을 펄스초 레이저로 미리 시행하면 백내장 수술 중 초음파 사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각막내피세포 손상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난시교정용 각막절개를 통해 수술 후 난시까지 줄일 수 있어 환자의 시력 회복 효과가 크게



개선된다.

황호식 교수(여의도성모 안과병원장)는 “이번 펄스초 레이저 도입으로 백내장 환자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첨단 장비를 통해 환자 만족도와 치료 성과를 한층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성모병원

로봇수술 3,000례 달성

산부인과·외과·비뇨의학과 등 경기북부 지역 로봇수술 선도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로봇수술 3,000례 달성을 기념해 7월 4일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의정부성모병원장 한창희 교수, 영성부원장 이상훈 신부, 진료부원장 이

태규 교수, 행정부원장 우연호 신부, 로봇수술센터장 김진휘 교수와 1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2020년 5월 최신 의료 기술인 4세대 다빈치 지 로봇수술 장비를 도입한 이후 지난 6월 27일 산부인과 김찬주 교수가 3,000번째 로봇수술을 집도하며 약 5년 2개월 만에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의정부성모병원 최소침습 수술의 오랜 노하우가 차세대 로봇수술로 성공적으로 확장되어 경기북부 지역 로봇수술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7월 8일 기준 누적 실적은 산부인과 1,528건, 외과 980건, 비뇨의학과 504건, 흉부외과 2건 등 총 3,014건이다.

로봇수술센터장 김진휘 교수는 “보다 다양한 수술을 젊은 의뢰진과 함께 이뤄내겠다.”고 로봇수술센터의 현재와 미래를 발표하며 3,000례 달성 이후의 포부를 밝혔다.

한창희 의정부성모병원장은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병원의 가치는 로봇수술 같은 첨단 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



로써 실현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자.”고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9만 7천여 명에게 따뜻한 손길, 188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실천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해 산하 8개 병원인 가톨릭대 학교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과 함께 총 188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9만 6,520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지난 5년간 평균을 웃도는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

치료가 절실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168억 원이 자선진료로 사용되었다. 이 외에도 기부금 11억 원, 의료 봉사 9억 원 등이 포함되어 가톨릭 의료기관의 사랑 나눔이 수치로도 증명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각 병원 소속 자선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기부, 의료·노력 봉사 등에 1만 6,228명이 직접 참여했으며, 지원 금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업무로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이웃을 위한 실천에 나선 교직원들의 모습은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CMC 단신

가톨릭대 부속병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대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내에서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급(1차)과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종합병원을 선별해 선정한 사업이다.

서울성모병원

국내 첫 양자컴퓨팅 활용 심혈관질환 진단 연구

서울성모병원 합동 연구팀(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정정임 교수, 순환기내과 윤종찬 교수, 서울시립대학교)의 '심혈관질환 임상 위험 예측 및 진단을 위한 양자 알고리즘' 연구과제가 미국 국립보건원이 주최한 '2025년 양자컴퓨팅 챌린지'에 국내 최초로 선정됐다. 연구 목표는 양자컴퓨팅 기반 전산유체역학 분석을 통해 기존보다 속도와 정확도를 높여 심혈관질환의 병태 생리를 규명하고 예후를 예측하는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다.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서울성모병원이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3년간 센터 운영 전반을 맡게 됐다.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알코올, 약물, 도박 등 다양한 중독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다. 서울성모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변기환 임상조교수를 센터장으로 임명하고, 센터 전담 인력 구성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중독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의도성모병원

안과병원 디멕 심포지엄 성료



여의도성모안과병원은 개원 3주년을 맞아 최근 'DMEK(Descemet Membrane Endothelial Keratoplasty, 디멕)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디멕은 고도화된 부분층 각막이식술로, 기증각막에서 데스메막과 내피세포만을 분리·이식해 기존 수술법에 비해 회복이 빠르고 시력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번 심포지엄에는 각막이식이 전공인 50여 명의 국내 안과 교수들이 참석해 각자의 임상 경험과 수술 노하우를 공유했다.

제4회 임상의학 심포지엄 성료

여의도성모병원은 최근 '2025년 제4회 임상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해 지난 5년간 보건 의료 빅데이터 기반 임상연구의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별강연에서는 임현국 교수(정신건강의학과, 뇌건강센터장)가 '젊은 연구자를 위한 연구비 수주의 A to Z'를 주제로 실제 사례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논의의 장으로 꾸러졌다.

성모자선회, 취약계층에 삼계탕 나눔



여의도성모병원 성모자선회는 최근 무더위에 지친 남대문·서울역 노숙인들과 신당동 여인숙 및 쪽방촌 주민들에게 영양삼계탕 350인분을 전달했다. 성모자선회는 초복을 맞아 폭염의 열기 속에서도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들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무더위로 고통받는 여인숙 및 쪽방촌 취약주민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하며 기력 회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제26회 간호학술세미나 개최

여의도성모병원 간호부는 최근 '제26회 간호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임상간호연구 4편과 학위논문 2편이 구연 발표됐고, 가톨릭대학교 김정희 교수(임상간호학과)의 심사와 총평 후 논문 시상식이 진행됐다. 학술대상은 12층 병동이 발표한 '조혈모세포 공여자를 위한 시청각 교육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가, 우수상은 간호행정교육팀의 '임상 간호사의 조직 내 의사소통, 셀프리더십이 환자안전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수상했다.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 소방과 첫 간담회 실시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북부권 역외상센터는 최근 권역 소방서 구급대원과 첫 실무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과 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중증 외상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골든타임 내 치료율을 높이며, 경기북부권 외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소방청 이상희 구급의료계장을 필두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일산, 파주, 포천 소방서와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50여 명이 참석했다.

부천성모병원

고려인 초청 나눔의료 실천



부천성모병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카자흐스탄 취약계층 고려인을 초청, 무료 수술로 희망의 손길을 건넸다. 부천성모병원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고려인 디아스포라(diaspora)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유대감을 형성하며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의 인류애와 나눔을 실천하고자 이번 나눔의료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 헌혈 캠페인



부천성모병원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노·사가 함께 하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세계 헌혈자의 날은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헌혈에 참가하는 헌혈자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마련된 기념일이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혈액수급 위기 극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 문화를 조성하고, 노사 화합과 협력 차원에서 합동으로 진행, 교직원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생명 나눔 정신을 실천했다.

은평성모병원

이종욱 펠로우십 연수 실시



은평성모병원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의공학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병원 의료기기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해 개발도상국 의료 수준 향상과 의료선교를 통한 가톨릭 영성을 동시에 실천했다. 이번 병원 의료기기 교육훈련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나, 몽골,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우간다, 탄자니아에서 온 총 12명의 의공학 실무자들이 참가했다. 교육은 참가 의공학 실무자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자 그룹과 관리자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의공학팀 업무 프로세스를 비롯해 의료기기 도입·유지보수·예방점검·수리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이 이뤄졌다.



동정



* 기관별 / 가나다 순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정혜선 교수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정 교수는 국정기획위원회 중 보건, 복지 등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분과에서 노동팀과 보건팀을 겸임하며 안전보건 관련 정책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서울성모병원 기획팀 배종진 팀장이 최근 '2025년 춘계 병원경영종합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병원 경영전략 수립과 성과관리 체계 구축, 환자 경험 개선 등 국가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최다 인용 논문 선정 및 최우수포스터상



서울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이윤석 교수의 '새로운 직장암 수술법 연구'가 국제 학술지 출판사 '와일리' 최다 인용 논문으로 선정됐다. 또한 이 교수는 아시아와 미국 학회에 초청되어 직장암 강의와 수술 시연도 진행하며, 대장암 분야의 세계적인 위상을 입증했다.

산부인과 로봇수술 1,000례 돌파



여의도성모병원 산부인과 송민중 교수가 최근 로봇수술 1,000례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2020년 4월 다빈치 로봇수술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이후 약 5년 만에 이룬 성과로, 국내 단일 기관 내 산부인과 로봇수술 분야에서 달성한 보기 드문 기록이다.

LG화학 미래의학자상 수상



여의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양경모 교수가 최근 '제17회 LG화학 미래의학자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양 교수는 임상강사 기간 중 간 질환 분야에서 기초 및 임상 연구를 활발히 수행, 총 15편의 SCI(E) 논문을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한 바 있다.

대한신장학회 차기 이사장 선출



은평성모병원 신장내과 최범순 교수가 대한신장학회 제20대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최 교수는 만성콩팥병과 신대체요법(신장이식, 복막투석) 분야에서 임상 연구 활동과 정책 자문을 활발히 수행하며 학회 내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CMC 기부를 빛나게 만들어 줄 한 문장
후원회사무국 주최 슬로건 공모전, 성황리 마무리

가톨릭중앙의료원 후원회사무국이 주최한 '가톨릭중앙의료원 후원회사무국 슬로건 공모전'이 250건의 출품 등 교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마무리되었다.

슬로건은 '나눔'과 '희망'뿐 아니라 '의료', '생명', '치유' 등 CMC의 가치를 반영하는 다양한 키워드를 담아 창의적이고 감동적인 메시지로 구성됐다. 최우수상은 '나눔을 잇다, 희망을 짓다'는 슬로건을 제출한 부천성모병원 간호교육Unit의 남은미 UM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에는 '사랑의 실천, 생명의 연결(Love in Action, Life in Connection)'을 제출한 서울성모병원 72Unit의 이해원 책임과 '가치를 전하는 손길, 내일을 밝히는 힘(Give for Tomorrow)'을 제출한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의 김상훈 사회사업가가 각각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남은미 UM은 "슬로건 공모전을 통해 나눔과 희망의 의미를 전할 수 있고, 좋은 뜻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후원회사무국은 선정된 슬로건을 활용하여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과 모금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보다 적극적인 기부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남은미 UM

손녀 따숨이를 위한 할아버지의 마음
이천복(다두) 기부자, 서울성모병원 자선기금 1천만 원 기부

오랜 기간 나눔을 실천해 온 이천복 기부자가 심장질환을 앓는 소아 환우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건넸다. 이 기부자는 지난 7월 23일, 후원회사무국 발전기금팀에 소아 심장질환 치료비로 사용해 달라며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천복 기부자의 아들 이홍권 님과 며느리 이민비 님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후,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의료인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이 부부는 7월 27일에 첫 아이를 출산했다.

이천복 기부자는, 이번 출산을 축하하는 마음을 단순한 선물 대신 의미 있는 기부로 전하고자 했다.

그는 10여 년 넘게 한국심장재단에 꾸준히 기부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환우 치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성모병원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손녀의 태명을 '따숨이'이라고 소개한 그는 "착한 사마리아인을 닮은 손녀 따숨이가 되길 기원하며 의미 있는 일을 남기고 싶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2025년 6월 신규 약정자 명단



가톨릭중앙의료원

• 생명존중기금(의료원위임)			
익명1	매월 20,000원	익명2	100원
익명3	1,000원	익명4	10원
익명5	800원	이경석	400,000,000원
• 공통사용 불우환우돕기	이현주		100,000원

대학(성의교정)

• 사서팀(도서관)	오일환	1,000,000원
• 의과대학 장학기부금	김기범	10,000,000원
• 메가스터디장학금	메가스터디교육(주)	45,086,800원
• 신탁장학금	CMC 신용협동조합	10,000,000원

서울성모병원

• 병원발전기금(위임)			
이경석	310,000,000원	서광후	1,000,000원

• 성모자선회

민병인	매월 5,000원	윤동원	매월 10,000원
이진익	200,000원	임소정	매월 2,000원
• 호스피스 발전기금		익명	10,000원
김경훈	1,000,000원	김명희	1,000,000원
이두원	매월 5,000원	홍정화	매월 100,000원

• 위임(기부자별관리)

(주)다이렉트컴즈		매월 3,000,000원
신유나	1,000,000원	유한태 300,000원
• 위임(선입선출관리)		익명 200,000원
고경남	200,000원	원민아 50,000원
• 연구기금(위임)		박영미 매월 100,000원

• 소아 질환 지정(기부자별관리)

남성일	10,000,000원	조혜신	10,000,000원
• 소아위임(기부자별관리)		코스닥협회	53,000,000원
• 간담회외과 연구기금		이경석	90,000,000원

• 소아 BMT(기부자별관리)

(주)플레이버팜스		5,000,000원
• 소화기내과 발전기금	서광후	9,000,000원

여의도성모병원

• 병원발전기금(위임)	(주)모아이스 20,000,000원	박은지	1,000,000원
--------------	---------------------	-----	------------

의정부성모병원

• 성모자선회			
윤라현	매월 5,000원	홍선주	매월 5,000원
• 호스피스 발전기금	익명		2,000,000원

부천성모병원

• 호스피스 발전기금	하중을	100,000원
-------------	-----	----------

은평성모병원

• 병원발전기금(위임)			
남진	2,000,000원	익명1	10,000원
• 은평성모자선회		익명2	500,000원
이재영	매월 40,000원	노미선	500,000원
• 호스피스 발전기금		김영자	1,000,000원
최경신	매월 30,000원	최경신	1,000,000원
• 은평성모병원 자선기금		김금녀	3,000,000원
박정남	50,000원	백훈결	500,000원
서지영	1,000,000원	윤승현	500,000원
이영선	50,000원	임철진	1,000,000원

가톨릭중앙의료원 후원회사무국 발전기금팀

TEL. 02-2258-7992~3, 7995~6 FAX. 02-2258-7994 E-mail. cmcfund@catholic.ac.kr 카카오톡. "CMC 발전기금" 검색

▶ 생명존중기금(일반후원) 입금 계좌 : 우리은행 1005-700-920886 (예금주: 가톨릭중앙의료원)



모바일 후원
바로 가기



가톨릭대학교 기초의학사업추진단·의과대학 차세대 연구과제 선정 쾌거! 미래 의료 패러다임 선도

유전자 가위 기술로 차세대 RNA 편집 연구 등 난치병과 같은 질병 실마리 찾는다



김영광(왼쪽)·김기표 교수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합성생물학사업단 김영광 교수(가톨릭대 의대 병리학교실) 연구팀의 '차세대 RNA 유전자 편집 기술' 개발 과제가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RNA(리보핵산)를 정밀하게 편집하고 조절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새롭게 개발해 난치성 신경계 질환 치료에 응용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5년 동안 총 28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중 18억 6천만 원이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집행된다.

연구팀은 RNA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병의 원인이 되는 RNA를 찾아내고, 이를 조절하거나 편집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이를 활용해 난치성 신경계 질환에서 새로운 치료 전략을 시도할 예정이다.



위진홍 교수

한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위진홍 교수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5년도 우수신진연구사업과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사업에 연이어 선정됐다.

이번 우수신진연구사업에서 위 교수팀은 '리소좀 TRPML 이온채널 기반 세포소기관 조절로 질환 신규 치료 표적 제시'라는 주제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약 12억 5천만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받으며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이온채널 활성의 변화가 세포 내에서 소기관 간 결합, 칼슘 전달, 신호전달 네트워크 해석과 같은 세포소기관 간 신호체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세포 생존/사멸 결정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신규 치료 타겟을 도출할 계획이다.

인천 성모

'글로벌 헬스케어센터 4호' 개소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글로벌 헬스케어센터 4호'를 개소했다. 이번 센터는 인천성모병원을 비롯해 중앙대학교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강남)나누리병원, (주)와우보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동 운영한다.

인천성모병원은 지난해 12월 몽골 울란바토르에 '글로벌 헬스케어센터 3호'를 개소한 바 있다. 이번 4호 센터 개소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권역까지 의료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러시아(1만 7천 명), 몽골(2만 5천 명), 카자흐스탄(1만 4천 명) 등 중앙아시아권 환자들이 한국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편 확대, 외환 송금, 신용카드 사용 등 여건이 정상화되면 외국인 환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성모병원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시장에 진출했다.



간암 다학제 통합진료 200례 돌파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최근 간암 다학제통합진료 시행 1년여 만에 200례를 돌파했다. 간암 다학제통합진료팀은 ▲권정현, 이순규 소화기내과 교수 ▲윤영철 간담체외과 교수 ▲심동재, 김도영 영상의학과 교수 등 각 분야 전문의가 한자리에 모여 환자 상태를 논의하고 최적의 치료 방법을 제시한다. 간암은 환자마다 병기, 간 기능, 전신 상태 등이 달라 단일 진료과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치료 방향도 맞춤형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보호자도 진료에 함께 참여해 치료 방향과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문할 수 있어, 치료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다. 다발성 골전이로 인해 신경학적 이상이 우려됐던 50대 남성 환자에게 신경외과적 수술 대신 방사선 치료를 시행해 증상을 조절하고, 내과적으로는 전신항암치료를 병행해 환자를 회복시킨 사례가 있다. 또 다른 환자는 생체 간이식이 최적의 치료로 결정돼, 간이식 수술 후 무사히 퇴원한 바 있다.



성빈 센트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 사업 실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 사업 운영에 들어갔다.

'심층진찰'은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에 장시간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15분 이상의 충분한 진료시간을 제공하는 전문적·심층적 의료 서비스다.

성빈센트병원에서는 방사선종양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이비인후과, 중앙내과, 재활의학과, 노년의학클리닉 등 총 7개 진료과 18명의 의료진이 심층진찰에 나선다. 진료 대상은 진료과별 질환 및 기준에 따라 심층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초진 환자다.

성빈센트병원은 이번 시범 사업이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초진 환자들에게 전문적이고 밀도있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어, 환자 중심의 적정진료를 실현하고, 의료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중증 및 희귀난치 질환에 진료 역량을 집중하고 합리적 의료전달 체계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 성모

'바이탈빔' 도입 3년 만에 방사선 암 치료 3만 건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과가 방사선 암 치료 장비 '바이탈빔(VitalBeam)' 도입 3년 만에 방사선치료 시행 건수 3만 건을 돌파했다. 이번 성과는 대전성모병원이 중부권에서 처음으로 '바이탈빔'을 도입한 이후 단기간에 이뤄낸 결과로 지역 암 치료의 역량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방사선치료는 수술, 항암제와 함께 3대 표준 암 치료법 중 하나로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수술 후 재발을 막기 위한 보조적 치료나 수술이 어려운 국소 진행성 암들에서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항암제와 병행치료를 사용된다. 또한 전이암에서는 종괴 크기를 줄여 여러 증상을 완화시킬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대전성모병원은 지역 간 암 치료 의료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화기암, 부인과암, 유방암, 폐암, 뇌종양, 비뇨기암, 두경부암 등 주요 암에 적합한 치료 기법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고정밀 방사선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암 경험자의 삶을 돌보는 또 하나의 의학 서울성모병원 통합 암 건강 클리닉



암 치료는 끝났지만, 건강은 여전히 불안한가요?

서울성모병원 **‘통합 암 건강 클리닉’**은 암 경험자의 **새로운 일상을 함께 설계합니다.**

항암치료와 수술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치료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암 경험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극심한 피로감, 만성 통증, 수면장애, 인지기능 저하, 체중 변화, 불안과 우울 같은 정서 문제는 일상생활에 제약을 주고, 회복의 걸음을 늦추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항암치료로 인한 심혈관계 및 내분비계 이상**(예: 고지혈증, 당뇨, 골다공증), **면역력 저하, 만성질환의 악화, 이차암의 위험** 등은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적인 건강 이슈는 일반 외래 진료 체계만으로는 충분히 관리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이처럼 **‘암 치료 이후’**의 의료 공백에 주목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통합 암 건강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사후 관리 진료를 넘어, **암 경험자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맞춤형 회복 진료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통합 암 건강 클리닉이 특별한 이유

- ◎ **전문과별 다학제 협진 시스템**
 - 주치의 중심의 통합설계로 필요시 적절한 전문과와 연계 진료
- ◎ **암종별 특성에 맞는 추적 관찰 및 동반질환 관리**
- ◎ **암 경험자 맞춤 건강관리**
 - 피로, 통증, 가속 노화, 비만, 영양, 운동, 수면장애, 정서 문제 등 전인적 평가
 - 암 재발 예방 및 만성질환(고지혈증, 당뇨, 골다공증 등) 집중 관리
 - 재발 및 이차암의 위험 요인 추적, 필요한 경우 정기검진과 연계
- ◎ **마음까지 보듬는 진료**
 - 암 이후 삶에 대한 불안, 우울에 대한 심리상담
 - 정기적 모니터링과 추적 관리로 환자의 삶을 동반
- ◎ **암 예방 및 조기진단 서비스도 함께**
 - 암 유전력,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반영한 암 고위험군 선별
 - 암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건강한 일반인도 이용 가능
 - 맞춤형 암 예방 전략(예방접종, 영양·운동·생활습관 코칭 등)을 통한 조기진단 및 건강 설계

통합 암 건강 클리닉의 진료 대상은?

- 항암치료 및 수술을 마친 암 경험자
- 치료 중 발생한 건강 문제를 동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치료 중 환자
- 암 가족력이 있어 예방적 관리가 필요한 암 고위험군
- 암 환자의 가족, 간병자 등 보호자



진료안내 서울성모병원 통합 암 건강 클리닉 : 1588-1511

당신의 건강 파트너!

여의도성모병원을 만나는 쉬운 번호

☎ 1661-7575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 획득

www.cmcsungmo.or.kr

백내장 수술용

펄초레이저

백내장 수술용 펄초레이저(카탈리스, 존슨앤존슨社)는
백내장 수술의 핵심 과정인



수정체
전낭절개술



수정체
핵분할



난시교정용
각막절개

모두 레이저로 시행할 수 있어 기존 수술법 대비 정확도, 편의성, 그리고 안전성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 시 꼭 필요합니다.

난시교정용 각막절개

수술 후의 난시를 줄여 환자의 시력 회복 효과가 크게 개선됩니다.

수정체전낭절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완벽한 원형 모양의 절개가 가능해 수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수정체핵분할

백내장 수술 중 초음파 사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각막내피세포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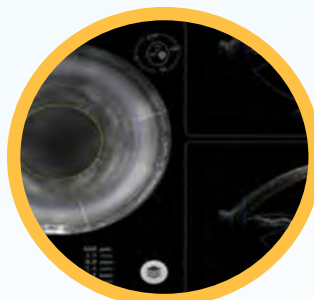
PLAN

Graphical User Interface(GUI)
& Advanced Controls



ENGAGE

LIQUID OPTICS™
Technology



VISUALIZE & CUSTOMIZE

INTEGRAL GUIDANCE™
System



TREAT

State of the Art
Femtosecond Laser

▶ Youtube meet the Yeouido St. Mary's Hospital





전화예약
1661-7500
평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오후 12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ujb.or.kr

의정부성모병원, 로봇수술 3,000례 달성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로봇수술 3,000례 달성을 기념해 7월 4일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의정부성모병원장 한창희 교수, 영성부원장 이상훈 신부, 진료부원장 이태규 교수, 행정부원장 우연호 신부, 로봇수술센터장 김진휘 교수와 1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2020년 5월 **최신 의료 기술인 4세대 다빈치 Xi 로봇수술 장비를 도입**한 이후 지난 6월 27일 **산부인과 김찬주 교수가 3,000번째 로봇수술을 집도하며 약 5년 2개월 만에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의정부성모병원 최소침습수술의 오랜 노하우가 차세대 로봇수술로 성공적으로 확장되어 경기북부 로봇수술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7월 8일 현재 **누적 실적은 산부인과 1,528건, 외과 980건, 비뇨의학과 504건, 흉부외과 2건 등 총 3,014건**이다.

로봇수술센터장 **김진휘 교수**는 **"보다 다양한 수술을 젊은 의료진과 함께 이뤄내겠다"**며 로봇수술센터의 현재와 미래를 발표하며 3,000례 달성 이후의 포부를 밝혔다. **한창희 병원장**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대학병원의 가치는 로봇수술 같은 첨단 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자"고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부천성모병원을 만나는 쉬운 번호

1577-0675

영 육 치 료



건강, 그 이상의 행복 실현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bucheon.or.kr

Since 2005

심혈관중재술 개시 20주년

심혈관조영술, 관상동맥중재술 등 20년간 누적 검사 및 시술 **3만례 돌파**



김희열 교수

[오전] 화, 수, 목



김동빈 교수

[오전] 월, 금 [오후] 화, 목



변성욱 교수

[오전] 화 [오후] 수, 금



목지수 교수

[오전] 목 [오후] 월, 금



심혈관중재술

(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좁아진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거나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혈류를 회복시키는 대표적 중재시술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혈관질환의 치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심혈관조영술

(Coronary angiography)

심근경색과 협심증 등 심장질환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검사법으로, 혈관을 통해 관을 삽입하여 심장의 관상동맥을 영상으로 확인 후 혈관의 막힌 부위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전화예약
1811-7755
평 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12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ep.or.kr

로봇수술 4,000례! 수도권 로봇수술 거점 병원 우뚝



장기이식부터 암까지 고난도 수술역량 입증

- ✓ 국내 최초 뇌사자 로봇 신장이식 성공
- ✓ 전립선암, 갑상선암, 자궁내막암, 대장암, 간암, 식도암 등 고난도 로봇수술 선도
- ✓ 좁고 복잡한 부위의 두경부암(경구, 편도, 인후암) 적용 확대
- ✓ 정교한 수술로 장기 기능 보존, 수술 후 삶의 질 향상 및 환자 만족 극대화

개원 이후 6년 만에 4,000례 돌파

